보존 사각지대 '불단' 재조명 초석 놓다

불교문화재硏 · 문화재청 '불단 일제조사' 보고서 발간

지난해 첫 일제조사 진행해
전북 · 전남 사찰 15곳 대상
기록화 · 보존과학 조사추진
조사통한 문화재 지정 계획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전각 내 불상 아래에는 불단(佛壇)이 있다. 부처님을 바닥에 두지 않고 높이 모시기 위해 만든 불단은 수미단(須彌壇)이라고도 한다.

불단은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문양으로 전각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눈길이 가는 사찰 목공예의 진수지만, 그동안은 전각의 구조물 중 하나로 여겨왔다. 그러다 보니 전각과 불상, 불화에 비해 불단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고 보존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과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불단의 문화재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사업'을 추진했고, 4월 30일 첫 번째 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김제 금산사 대장전(보물) △완주 화암사 극락전(국보) △익산 숭림사 보광전(보물) △구례 화엄사 대웅전(보물)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등 전북 · 전남 지역 사찰 15곳을 대상으로 일제조사가 진행됐다.

연구소는 사찰 불단에 대한 인문학적 조사, 원형 디지털 기록화(2D 디지털 촬영 · 3D 스캔, 정밀실측 및 도면 작업), 보존과학 조사(손상현황지도 · 수종 및 성분 분석 · 보존환경 분석), 안전점검 등을 병행한 정밀조사를 진행해 보고서에 수록했다.

각 사찰 전각 불단의 현황을 비롯해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재와 장식재 등 각 부재의 재질 분석 및 보존과학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또한 보존현황을 파악해 손상현황지도를 작성하고 현재 불단의 변위 및 단면 분석을 통해 안전도를 평가했다.


완주 화암사 극락전 불단.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찰 불단에 대한 일제조사가 지난해부터 진행돼 올해 첫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사업 결과 보고서. 전북 · 전남 사찰 15곳 불단의 정밀조사 결과가 담겼다.

처음으로 불단 내부와 구조에 대한 기록화 조사를 추진한 것도 큰 성과다. 불상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내부 구조재 및 결구 등과 외부 표면을 장식하는 장식재를 구분해 조사했으며, 각 부재별 수종을 분석해 향후 보수 · 수리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불단의 '전면-배면-좌측면-우측면'에 대한 이미지를 수록하고, 3D 스캔 자료를 비롯해 2D 이미지를 병합한 포토그래매트리 자료를 함께 게재해 불단의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불단의 도면을 작성해 정밀 제원사항을 기록하고, 불단에 새겨진 각종 문양 이미지를 상세히 수록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불단 조성의 변화를 추정한 개요도 눈길을 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이 작성한 개요에 따르면 불단의 원형은 대좌로 신라 · 고려시대 불상은 '경주 석굴암 석굴'과 같이 불단없이 불상 대좌에 봉안했다. 대좌에 앉혀진 불상은 불전(佛殿) 중앙에 있었고, 당시 법회도 불상 주변을 돌며 행하는 요잡례(繞匝禮) 형태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가 아는 불단과 불상 배치가 정착된 것은 조선시대다. 조선시대에서는 불상 앞에서 배례(拜禮)하는 예불 방식이 발달하고 법회가 많아지면서 불전 내 공간 활용도가 변화했다. 이에 따라 "불상과 공양물을 함께 올릴 수 있는 불단이 설치되고 예불 장소를 넓게 확보하기 위해 불전 후면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조선 초기에는 불단을 전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으나 늦어도 15세기에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불단'과 같이 불상 봉안, 공양물 진설 등을 위한 불단이 등장한다"면서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재건한 불전에서 모두 불단이 설치되는 점을 보아 16세기에 이미 불단이 불전 내 통상적인 구조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사업'은 올해에는 전남 지역 4개 사찰, 부산 · 경남 지역 7개 사찰을 대상으로 불단 13점과 장엄구 13점에 대한 정밀조사와 원형 기록화, 보존과학 조사 등이 이뤄진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찰 불단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사찰 목공예의 전통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발간된 보고서를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3m 화엄사 삼신불좌상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4월28일 지정예고
현존 유일 초대형 삼신 불상
불영사 불연 등 보물 예고돼

현존 유일 3m 초대형 삼신불상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보물 제1548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삼신불좌상'을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울진 불영사 불연',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 '송시열 초상'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월 28일 밝혔다.

국보로 승격되는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교조각 중 '삼신불(三身佛)'로 구성된 유일한 작품이다. 삼신불은 법신(法身)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보신(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 화신(化身) 석가불(釋迦佛)을 의미하며 화엄사상에 근원을 둔 도상이다. 변상도나 사경 등에는 종종 보이지만, 조각상으로는 화엄사 사례가 유일하다.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3구의 좌상은 모두 3m가 넘는 초대형 불상으로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 1635년(인조 13) 당대 유명한 조각승인 청헌(淸軒)과 응원(應元), 인균(印均)을 비롯해 이들의 제자들이 만든 17세기의 대표적 불교조각이다.


보물서 국보로 승격 · 지정 예고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최근 발견된 삼신불의 복장유물 등 관련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소실된 화엄사를 재건(1630~1636)하면서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1634년부터 1635년 삼신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련 기록에는 후원자, 참여자들의 실체가 담겼다. 발원문에 의하면 전국 승려집단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을 역임한 벽암 각성(碧巖 覺性, 1575~1660)의 주관 아래 선조(재위 1567~1608)의 8번째 아들 의창군 이광(李珖, 1589~1645) 부부와 선조의 사위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1588~1644) 부부 등 다수의 왕실 인물과 승려 580여명을 포함한 총 1,320명이 시주자로 참여했다.

삼신불좌상은 화려한 연꽃을 갖춘 대좌(臺座)와 팔각형 목조대좌에 다리를 서로 꼰 결가부좌자세로 앉아 있다. 거대한 규모와 더불어 단순하면서도 선이 굵게 처리된 조각솜씨로 인해 중후한 느낌을 더한다.

문화재청은 "17세기 제작된 목조불상 중 크기가 가장 크고, 조각으로 유일하게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여래불로 표현된 삼신불 도상이라는 점에서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커 국보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울진 불영사 불연'은 1670년(현종 11) 화원(畵員)으로 추정되는 광현(廣玄), 성열(性悅), 덕진(德眞) 등이 참여해 조성한 2기의 불교의례용 가마다. 불교목공예의 일종인 불연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물 지정예고된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일괄'은 1656년(효종 7) 만들어진 불상으로, 당시 제작된 나한상 중 수량과 규모면에서 가장 큰 작품이다. 이 일군의 불상은 수조각승 무염(無染)의 통솔 아래 조각승들이 1~4명씩 분담해 제작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울진 불영사 불연'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국보 신원사 괘불, 첫 서울 나들이

국립중앙博, 부처님오신날 맞아 괘불展

국보 제299호 '공주 신원사 괘불' <사진>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개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국보 제299호 공주 신원사 괘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괘불 특별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00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이한다.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했던 사찰로 잘 알려진 공주 신원사의 대표 성보문화재인 '공주 신원사 괘불'이 공주를 떠나 서울에서 전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공주 신원사 괘불은 전체 높이 10m, 너비 6.5m, 무게 100kg 상당의 규모로 350여 년 전인 1664년(현종 5)에 완성됐다. 조성된 지 수백 년이 훌쩍 넘었지만, 도상이 매우 화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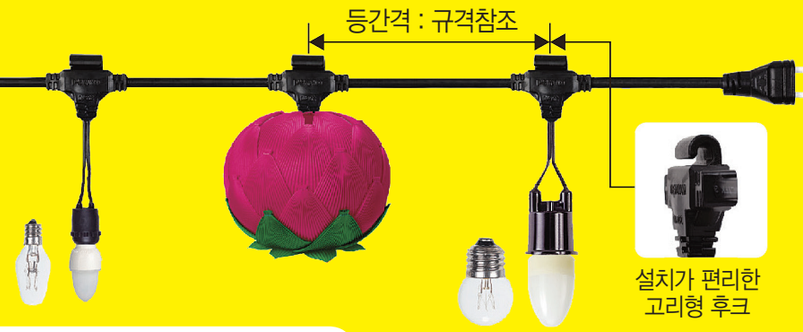
열아홉 폭의 삼베를 이어 만든 대형 화폭 중앙에는 노사나불(盧舍那佛)이 있다. 화려한 보관과 반짝이는 구슬, 다채로운 무늬로 장식했으며, 주변에 펼쳐진 찬란한 광명은 수행 끝에 얻은 깨달음과 부처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신원사의 역사와 괘불을 상세하게 조사한 도록도 발간했다. 도록에는 적외선 촬영을 통해 짙은 색으로 가려진 장황 무늬와 화승이 고쳐 그린 흔적이 확인된 사실과 신원사 대웅전에 봉안된 근대 불교회화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신성민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